



김민정 작 'Phasing' ©STUDIO MINJUNG KIM.



2025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

100일 앞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문명의 이웃들'주제...전통 확장 중점
8월 30일~10월 31일 목포·해남 등
한국·말레이·네덜란드 등 작가 62명



미투센 작 'I bleed River' ©Mitu Sen

대륙 넘어 바다를 매개로 한 문명의 관계성에 주목

‘대륙 중심에서 바다를 매개로 한 문명의 관계성에 주목하다’.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펼쳐지는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동아시아 해양 문명권에 집중한다. 또한 수묵이 역사적, 해양적 연결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했는지도 탐색할 예정이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수묵비엔날레 100일을 앞두고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주제를 비롯해 전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회를 가졌다.

참여 작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네덜란드, 호주, 폴란드 등 모두 62명이다. 한국 작가로 문주혜, 윤준영, 조세랑 등과 일본 작가 팀랩 등이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재갑 총감독은 “수묵은

물에 잘 녹는 안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도구와 그림 그리는 도구가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며 “올해 수묵비엔날레에서는 전통의 확장과 재료의 혁신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수묵비엔날레는 중국 심천과 전남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심천은 역사가 깊은 데 반해 공간당이 운영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엄밀히 말해 국제성이 가미된 수묵비엔날레는 전남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남수묵비엔날레는 동양의 정신은 모티브로 정체성과 미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국제 전시”라며 “21세기를 거치며 재료와 테크놀로지 기법을 받아들이는 수묵과 수묵의 방향성 등을 다양한 작품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수묵비엔날레 주제는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 ‘황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해양 문명권을 토대로 한국과 아시아, 세계를 잇는 문화 플랫폼의 가능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시가 이루어지는 해남, 진도, 목포를 잇는 전시 동선은 고유의 역사성과 미학적 자산을 보유한 지역을 아우른다. 수묵의 과거와 현재, 전통과 실험, 철학과 기술이 교차하는 복합적 구조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콘셉트는 ‘전통의 재해석과 재료의 확장’에 있다. 아시아 수묵이 어떻게 서양의 미학, 동시대 예술 언어, 기술과 만나 실험성과 예술적 지평을 탐색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전시장은 목포(목포문화예술, 목포실내체육관), 진도(남도전통미술관, 소전미술관), 해남(고산운

선도박물관, 땅끝순례문화관) 등 모두 6곳이다.

전시는 해남에서 시작해 진도 목포로 이어진다. 먼저 해남은 조선 후기 대표 화가인 공재 윤두서가 활동했던 지역으로 수묵화의 조형성과 사유적 전통이 시작됐다. 치밀한 관찰과 사실적 묘사는 외형재현 차원을 넘어 내면과 존재를 성찰하는 통로로 인식된다.

허유림 큐레이터는 “윤두서의 작품은 기법과 재료를 넘어 자연과 인간을 사유하는 기제로서의 수묵이 어떤 역할을 하고 확장돼 왔는지 보여 준다”며 “역사적 맥락에서 진도와 목포의 수묵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묵의 지속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도는 남종화의 거장 허련과 후손들이 수묵화를 이어가며 문화적 기반을 형성해왔다. 예술과 일상,

창작이 통합된 윤림산방은 전통수묵의 미학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간이다.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지인 목포는 지역성과 국제성이 교차하는 복합문화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묵의 현대적 해석과 실험을 수용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 회화를 비롯해 미디어, 설치, 사운드 등 다매체를 아우르는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수묵비엔날레는 황해 중심의 아시아 해양 문명권의 교류와 연결을 통해 수묵이라는 동아시아 예술전통을 보다 거시적으로 조명한다”며 “상호 교류, 감각적 연결을 매개로 새로운 문화적 상상력이 발현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몬드리안 세계, 발레 언어로 탄생하다

‘몬드리안-더 라인 오브 옵세션’
ACC재단, 7월18~19일 극장1

추상 미술과 컨템포러리 발레가 만나 새로운 선과 색의 예술이 탄생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7월 18일(오후 7시 30분)과 19일(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에서 ‘몬드리안-더 라인 오브 옵세션(Mondrian-The Line of Obsession)’을 선보인다. 안무가 정형일.

이번 작품은 20세기 추상미술의 거장 피에트 몬드리안의 세계를 발레의 언어로 재해석한 무대다. 선과 색에 대한 집요한 탐구로 알려진 몬드리안의 내면을 무용과 미디어아트, 음악이 결합된 무대를 통해 들여다본다.

무대를 꾸미는 ‘정형일 Ballet Creative’는 예술 감독 정형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발레 단체다. 미니멀하면서도 균형 잡힌 무대를 통해 발레 본연의 미학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몬드리안이 추구한 회화의 본질과 정 안무가가 탐구해온 발레의 미학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차하며 새로운 감각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ACC재단은 오는 7월 18~19일 ACC 극장1에서 ‘몬드리안-더 라인 오브 옵세션’을 선보인다.

〈ACC재단 제공〉

정 안무가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에 영상 기술을 더해 시청각적 몰입감을 높였으며, 발레 예호가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도 색다른 예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형일 예술감독은 작품 시놉시스를 통해 “발레와 몬드리안의 그림이 공유하는 주제인 ‘강박’을 격

자 구조 안에서의 움직임의 통해 담아내고자 했다”며 “신체가 가진 구조적인 조형미에 음악과 영상이 더해진 이번 무대를 관객들이 충분히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김민지 작 'Full bloom flower'

사시사철 새로운 풍경…꽃들의 기억들

김민지 초대전, 6월 29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다. 과도한 경쟁과 실적주의는 피로감을 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되풀이되는 일상은 잠시의 일침을 주지 않는다.

이럴 때 자연을 대면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자연은 치유의 힘이 있다. 인간 내면에 갇든 상처를 말없이 위로해주고 다독여준다.

특히 자연과의 대화는 경계가 없는 꿈을 꾸게 한다. 사시사철 새로운 풍경을 전해줌으로써 상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한다.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 오는 6월 29일까지 열리는 김민지 초대전. ‘잊힐 운명, 잊혀질 것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전시는 자연을 초월했다는 특징이 있다.

‘Full bloom flower’는 봄의 어느 언덕, 어느 동산에 있을 법한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화사하면서도 파스텔 색감, 화폭에 차고 넘치는 싱그러운 기운은 보는 이에게 상쾌함과 행복감을 선사한다. 자연의 색이 주는 편안함과 아울러 빠르게 들어찬 꽃들과 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조화와 경양의 미학을 일깨운다. 언젠가 꽃들은 지겠지만, 화사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은 남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할 힘을 줄 것이다.

김 작가는 “자연은 늘 내게 평안과 해방감을 주며 나를 새롭게 꿈꾸게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꽃들이 전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